



17일 오후 비상근무에 나선 합평군청 공무원들이 합평읍의 한 축산농가 입구에 석회를 살포하고 있다. 합평군은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2일부터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82년 청정’ 전남 구제역 차단 총력

도 경계지·주요도로에 소독시설...전북 인접 시·군 돼지에 백신 접종

1934년 이후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도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전북 김제에 이어 고창까지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 경계지역은 물론 시·군 간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전북 인접 시·군 돼지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의 전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역은 물론 시·군 간 주요 도로 35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약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전 축산위생시험소)는 사전 혈청검사와 의심축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시 방어능력이 백신형태 형

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북도와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5개 군에서 사육된 도축장 출하돼지 1500마리에 대해 긴급 혈청검사를 실시해 적정 항체 형성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 시 해당 농장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양돈농가에는 즉시 예방접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군과 협조해 도축장 주변은 물론 돼지 집단 사육단지과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 방제지랑과 소형 소독차량을 이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차단방역 홍보 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전북 등의 소·돼지 등 도내 반입 및 도축을 제한하고,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에 대해서도 출하 농가별 임상검사 등 생체검사를 통해 이상

이 없는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도축장에 출입하는 가축 수송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철저히 소독한 후 이동하도록 조치했으며, 도축장 내 계류장과 주변에 대해서도 매일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구제역 방역 대상은 2만5000 축산농가의 소, 돼지 등 154만2000두로, 현재 321만8000두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백신 구입 실적이 저조한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강화하고 농가별 담당공무원 4000명을 동원해 예방접종, 소독 등 방역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남 65건, 경기 55건 등 전국 7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9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민 47% “귀농·귀촌 의향 있다”

전년비 8% 증가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작년 10~12월 기간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도시민이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64명을 사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

전년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응답이 48.5%로 조금 더 많았으나 전년(54.5%)과 비교하면 응답비율이 6%포인트 줄었다. 대신 귀농 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39%)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고연령층일수록, 또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은 58.2%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꼽았다. 이어 ‘시간이 여유로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6.2%),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7.4%)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필뉴스

조석래 효성 회장 횡령·배임 무죄

탈세 혐의만 인정 징역 3년...법정구속은 안해

효성 “IMF 극복 과정 감안 안돼...항소할 것”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조 회장이 경제발전기에 기여한 점과 고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효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IMF(국제 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항변했고, 법원은 상당부분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5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4)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고, 조세포탈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실 회사를 정상화하며 자연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진 것이지, 탈세를 의도하거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고 주장,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등 931억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2003~2005년 기술료 명목으로 효성의 중국법인자금 6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횡령)는 “경영상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2006년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233억원을 빌려주도록 한 뒤 대여금을 전액 손실시킨 혐의(특경가법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인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부실회계를 외부에 노출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358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과 재계는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조 회장의 노력이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효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효성물산을 외환

위기 때 정리하려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해 상당액의 부실을 떠안게 됐다는 게 효성 측의 주장이다. 또 부채비율 200%를 맞추라는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한 것일 뿐, 총수일가가 사익을 추구했거나 자급의 사의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5000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납부해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많은 투자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효성은 공적자금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이를 극복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경제 전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아쉬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의 잣대로 보면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효성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영업이익을 내서 손실을 정리했다는 점을 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 내정

장·차관급 인사 호남 출신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57·부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신임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후속 인사로 국무조정실장과 6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임명된 7명의 장·차관급 중 영남 출신이 3명, 서울 출신이 3명, 강원 출신이 1명으로 호남 출신은 또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행정 26회의 정무 경제관료 출신으로, 추진력과 현안 조정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최상목(53·서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래부 1차관에는 홍남기(56·강원 춘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최 기재부 1차관 내정자는 행정 29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 별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 신영복(사진)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지난 15일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관료시(17면)** 신 교수는 지난 2014년 위구리 피부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중이었으나 이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숨을 거뒀다. 경남 밀양 출신인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사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년을 복역했다. 1988년 광복특설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성공회대 교단에 섰다. 1998년에는 20년 수감생활 소회를 담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해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장례는 18일 오전 11시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 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 /박정욱기자 sky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졸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의사, 현직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대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242명 810명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곡스피치리더십교육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